“여름 방학엔 청소년센터서 놀자”

지역 곳곳에 자리잡은 불교계 어린이·청소년시설

박현자(52 · 가명)씨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의 방학이 다가오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다른 부모들처럼 아이를 학원에도 보내고 싶고 좋은 교육 환경도 만들어 주고 싶지만 남편과 사별한 박씨 혼자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두 가족 생활비 충당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또 하나, 일을 하다 보니 아이가 늘 혼자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 박씨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박씨는 호소한다.

“저 같은 불자를 위해 불교계에서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시설, 우리 주변에 많이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흔히 요즘 아이들에게는 방학도 없다고들 한다. 학원이다, 보충수업이다 해서 각종 사교육을 통해 부족한 학습능력을 보충하는 시간이 바로 방학이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양극화의 그늘이 크게 드리워지고 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비싼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학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아이들. 여기에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는 이른바 ‘열쇠아이’ 역시 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가진 아이들에게 개방된 공간은 사실 지역 곳곳에 있다. ‘공부방’ 또는 ‘청소년독서실’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지역 시설이 바로 이런 시설들이다. 불교계에서도 ‘방과후 교실’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 및 기관들이 전국에 있다. 형태는 크게 공부방, 지역센터, 문화센터 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지역 속에서, 지역밀착형으로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독서실 또는 공부방이다. 이곳들은 그야말로 ‘지역밀착형’이다. 특히 이러한 시설은 지역의 수요에 의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요즘은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도 개설되고 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서울지역에 약 20여 곳 정도 된다. 이중 동산불교대학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석관청소년공부방(원장 정진화, 02-941-1242)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 아우르는 시설이다. 아동들의 방과후 교실과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교실은 이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이곳은 독서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1시간에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으로 전액 쓰인다. 게다가 인근 지역센터와 연계해 수영 · 글짓기 · 탁구 교실 등을 무료로 제공해주기도 한다. 컴퓨터 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기 때문에 이 시설의 하루 이용 학생 수는 120명에 이른다. 성북2동청소년공부방을 비롯한 다른 시설들 역시 석관청소년공부방과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청소년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 방학때 갈만한 지역공부방 및 센터

구분	시설이름	지역	연락처
지역아동센터	새날복지회부설	경기 성남시 금광1동	(031)745-9808
	즐거운학교지역아동센터		
	당진지역아동센터	충남 당진군	(041)354-1385
독서실	금호청소년독서실	서울 견지동	(02)2299-2414
	월곡청소년센터	서울 하월곡3동	(02)918-3543
	용마청소년공부방	서울 면목8동	(02)496-8689
	답십리청소년독서실	서울 답십리3동	(02)2243-3648
	수유1동청소년독서실	서울 수유1동	(02)986-7623
	구로3동청소년독서실	서울 구로3동	(02)852-7771
	응암청소년독서실	서울 응암4동	(02)307-5384
	신월청소년독서실	서울 신월동	(02)2695-4611
	신림청소년독서실	서울 신림11동	(02)856-1207
	신내청소년독서실	서울 신내1동	(02)434-3887
	성북2동청소년공부방	서울 성북2동	(02)741-1028
	상계2동청소년 공부방	서울 상계2동	(02)934-2118
	구립동대문청소년독서실	서울 장안4동	(02)2247-3120
	구로구립궁동청소년독서실	서울 궁동	(02)2619-7444
	구로5동청소년독서실	서울 구로5동	(02)854-7081
	거여청소년독서실	서울 거여2동	(02)431-1425
수련관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지원센터	충남 보령시 대천동	(041)934-1434
	제천시청소년수련관	충북 제천	(043)651-7474
	구로청소년수련관	서울 구로2동	(02)838-1318
	대한불교청소년연합부여지회	충남 부여 보리사	(041)834-7755
	부산시양정청소년수련관	부산 양정2동	(051)868-0750
	신흥사청소년수련원	경기 화성시	(031)357-2695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부산 동삼1동	(051)405-5223
	목동청소년수련관	서울 목동	(02)2642-1318
	괴산수련원	충북 괴산군	(043)833-0399
	부루나청소년교육회관	인천 가좌3동	(032)577-0266
사찰	금장사 보리공부방	서울 홍은동	(02)395-0042

tip! tip! tip!

지역아동정보센터(www.icareinfo.info)를 클릭하보세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2168개(2007년 12월 기준)가 설립돼 있으므로 지역아동정보센터(www.icareinfo.info)에서 찾고자 하는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각 지역사회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학 시즌을 맞아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내방,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이용 요금을 면제받거나 상당부분 할인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 문화센터로 놀러가 볼까

어린이·청소년기에 놀이 문화는 무척 중요하다. 한참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시기이기도 하거니와 성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신나는 놀이문화와 함께 학습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들이 놀이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는 곳이 각 지역 청소년 문화센터 또는 수련원이다.

청소년지원센터들의 특징은 아이들에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만들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지원센터는 또한 각 지역별 동사무소 · 학교 · 병원 등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중 부산 양정청소년수련원 · 지원센터(원장 범산)는 ‘UCC만들기’ 등의 영상제작훈련은 물론 방학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청소년들을 찾아간다. 또한 보령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지원센터(원장 정운) 역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풍물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곳이다.

▲사찰에도 어린이청소년시설이?

서울 홍은동 일대에서 ‘보리공부방’은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장사(주지 본각) 약사전 1층에 마련된 이 공부방은 2006년 개원해 지금까지 원어민 교사 영어 과외 지도를 하고 있다. 여기에 과학 체육 국악 풍물 서예 등 다양한 특활프로그램도 함께 지도하며 원하는 학생의 경우 선행학습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곳이므로 보육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교육비를 받지 않는 무료 방과후 교실이라는 점도 큰 메리트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나이 잊고 즐겁게 봉사해요”

병원봉사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호스피스 봉사는 계속해서 ‘삶’과의 이별을 목도해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타인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을 관조하게 만든다. 한 생각 바꿔보면 죽음 역시 삶의 일부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 삶의 마지막을 맞았을 때 보살펴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불제자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정해자(68·사진)씨는 요즘 일주일에 사흘 병원봉사를 통해 이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이다.

봉사자 정해자씨



일산병원서 3년째 호스피스 봉사
“노년층에게도 적절한 봉사기회를”

정씨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일반병동 환자들을 돌보고 목요일에는 일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한다. 봉사를 시작한지는 햇수로 3년이지만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한 것은 1년 남짓 됐다.

정씨는 병원에 도착하면 간호사에게서 봉사일지를 포함한 환자 차트를 받는다. 거기에다 정씨는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환자의 기분이나 상태 등을 차근차근 써둔다. 정씨의 메모는 다음날 봉사자에게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허투루 쓸 수 없다. 환자 차트를 살펴 보면서 정씨는 그날 만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맞춰’ 다가갈지 생각한다. 그가 하는 일은 주로 환자의 머리를 감기고 발 마사지를 하고 병수발로 힘겨운 환자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것 등이다. 정씨의 병원봉사 일과는 이렇게 돌아간다.

정씨의 특기는 무엇보다 ‘마사지’다. 병원봉사를 하기 전, 노인복지관에서 경락마사지를 해온 덕분인지 정씨의 마사지는 수준급이다. 어떤 환자들은 정씨가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기도 한다.

“오전에만 환자 다섯분에게 마사지를 할 때도 있어요. 저를 기다려준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기쁜데 어떻게 안 해드릴 수 있겠어요.”

항상 밝게 웃는 정씨는 어디서든 자신의 봉사활동을 떳떳하게 드러낸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상(相)’ 없는 봉사를 해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말을 꺼리는데 비하면 특이하다. 그러니 가끔은 ‘자랑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정씨에게는 이유가 있다.

“봉사활동 자랑을 해야 봉사를 같이 하실 분도 늘지 않겠어요? 봉사가 얼마나 좋은지,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는지 알려야한다고 생각해요.”

정씨는 봉사자 중에도 특히 불자 봉사자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정씨가 봉사하고 있는 일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에는 정씨만 불자 봉사자다. 다른 봉사자들과 종교적 갈등은 없지만, 불자들의 호스피스 봉사 참여도가 낮은 점은 늘 정씨 가슴 한 구석에 남아 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호스피스 봉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알린다.

“누구나 생을 마감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를 뿐이지요. 생을 마감하시는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지키다 보니, 가족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 등에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무작정 슬픔에 빠져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배우면서 부처님께 기도 한 자락이나마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늘 기쁘게 봉사하며 나이를 잊고 산다는 정씨. 그가 사회에 봉사자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이 많은 봉사자들도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경험과 체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사실 사람 나이 60대는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열정도 가장 많은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봉사 의지를 가진 노년층에게도 적절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강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www.hypnos114.com
전생·빙의
인간 잠재의식 직접 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 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잠재의식속에 숨겨진 심리적 근원을 밝혀 인간을 변화시키는 최면의 위력"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부부솔루션등 출연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ICHT)
심리상담 전문가,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생활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의 실제, 최면요법 등
빙의치유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가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현재 접수중
미국최면전문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한국최면과학원 대표전화 : 1544~2741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대전 042)222-0737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영남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사무국에서는 본 보존회 초대이사장이시고 영남범음범패 및 장엄도량의 보유자이신 문구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판소리, 가곡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성악곡의 하나인 범패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승 보존하고 우리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영산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저변인구 확대를 통해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과정(기본 : 6개월) 전문반 1년 (기본과정 수료자에 한함)
성적 우수한 스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
□ 교육과목 : 사물다루는법 / 각종제반의식
□ 작 법 무 : 천수바라작법무, 오공양나비작법무
□ 국 악 기 : 법고, 태평소, 대금, 단소,(영산회상, 청성곡 등)
□ 개 강 일 : 2008년 7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수시모집)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 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 대강당
□ 접수 연락처(사무국) : 051)327-5095 / 010-2314-1279
각종 사찰행사 본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전수자 스님을 배정하여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보시금 중 일부는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행자(예비스님)모집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